

##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소진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김 보 략

동아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최 수 미†

건국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적 소진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유의표집 방법으로 추출된 전국 7곳의 대학교 및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651명에게 부모화 경험, 불안, 정서적 소진, 사회적 지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과 AMOS 20.0을 통하여 상관관계, 연구 모형의 적합도 및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부모화 경험과 불안의 관계에서 정서적 소진과 사회적 지지가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부모화 경험이 직접적으로 불안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정서적 소진과 사회적 지지에 매개하여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상담실체에서 불안을 호소하는 대학생 내담자의 경우 성장기 부모화 경험뿐만 아니라 매개효과가 검증된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탐색과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위와 같은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하였다.

주요어 : 부모화 경험, 불안, 정서적 소진, 사회적 지지

\* 본 논문은 김보람의 석사학위논문에 기초함.

† 교신저자 : 최수미, 건국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Tel : 02-450-3825, E-mail : sumi0727@konkuk.ac.kr

후기 청소년기 혹은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대학생 시기는 인생의 발달단계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이다.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갈등과 방황이 수반되며 정서적인 불안정과 혼란에 빠지기 쉽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생 시기는 정신건강의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권석만, 2010). 정신건강 문제는 대학생 시기의 상담 주제로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구체적으로 우울/위축, 불안, 강박, 분노조절, 자살 등의 문제로 나타난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4). 이러한 문제들 중 불안은 인간이 경험하는 주된 불쾌 심리상태로(원호택, 신현균, 박현순, 권석만, 1996),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연령대에서 불안장애의 발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조맹제 외, 2012). 불안은 그 자체가 정신건강 문제에 해당하는 동시에 다양한 심리적 장애의 핵심징서로서도 지적된다(최진숙, 조수철, 1990). 따라서 대학생 시기의 대표적인 정신건강 문제에 해당하는 불안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원인과 기제를 밝히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의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정신 병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Bagozzi, & Edwards, 1998; Kendall, MacDonald, & Treadwell, 1995; 박영신, 김이철, 2000; 최인재, 2005; 박진아, 신유림, 이미리, 전연진, 이경숙, 2015, 재인용), 불안 역시 부모-자녀 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도연, 1993; Spielberger, 1972).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하나로 지각하는 강한 동일체감이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난다(류정현, 2007; 최인재, 2005). 이러한 부모-자녀 관계의 특성상 자녀가 부모의 역

할을 과도할 정도로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부모화라고 한다. 부모화(parentification)란 자녀가 부모의 돌봄을 받기보다 부모를 강박적으로 배려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가족을 돌보는 부모-자녀간의 역할전이를 뜻하며(Boszormenyi - Nagy & Spark, 1973),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돌보는 행동을 발달시켜온 자녀를 부모화된 자녀라고 한다. 부모화된 자녀는 부모와 타인을 돌보고 배려하는 행동을 보이며, 이로 인해 적응적이고 유능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조은영, 2004). 그러나 이러한 돌봄과 배려행동은 이후 부모화된 자녀들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강박적 배려심으로 나타나며, 이는 장기적으로 자녀의 정신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Davies, 2002). 또한 부모화된 자녀들은 대학생 시기에 해당하는 후기 청소년기 혹은 초기 성인기에 이르러 부모-자녀간 지나친 융합관계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이라는 발달과업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Teyber, 2006). 대학생 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제시된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독립(Havighurst, 1968)을 적절하게 하지 못했을 경우 이 역시도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Meyer, 1980). 따라서 부모화 경험 그 자체로 인한 혹은 부모화 경험에 의해 형성된 부모-자녀관계로 인한 발달과업의 실패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자녀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부모화 경험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는 불안, 허무감, 소외감(Wells, Glickauf-Hughe, & Jones, 1999), 우울(Byng-Hall, 2002), 분노, 대인 예민성(김경미, 이하나, 정주리, 정현주, 이기학, 2006) 등이 있다. 선행연구는 부모화 경험이 심리적 부적응 중에서 특히 우울, 불안과 큰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Hooper, 2007; 강

원희, 2010). Jurkovic, Jesse, & Goglia(1991)에 의하면 부모화 경험의 과정에서 부모의 지나친 욕구가 자녀에게 전이되어 과도한 수행을 요구할 경우 자녀의 불안이 유발된다고 밝혔다. 김경미 등(2006)은 부모화된 자녀일수록 부모와 정서적 융합을 이루게 되어 부모의 불안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또한 강지희(2008)의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부모역할의 경험이 많고, 부모역할에 대한 불공평을 많이 느낄수록 높은 불안 수준을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점들에 근거하여 부모화 경험이 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예상할 수 있다.

부모화된 자녀들은 어린 나이부터 부모를 물리적, 정서적으로 돌보는 책임을 지게 되며, 부모의 과도한 수행 요구에도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Jurkovic, Jesse, & Goglia, 1991). 더 나아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돌봄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자녀들은 일시적으로 학업성취 등의 활동에 몰두하거나(McMahon & Luthar, 2007; 서경현, 조양선, 손솔, 2013, 개인용), 학교생활 및 지역사회에서 과도한 책임감을 가지고, 경쟁적이며 성취지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Mattews & Angulo, 1980) 가정 안팎으로 수행에 매달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처럼 부모화된 자녀들은 감당해야 하는 책임감이 늘어나는 만큼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이다(김경미 외, 2006). 부모화 경험은 자녀의 발달과정에 적절하지 않은 지나친 요구(Byng-Hall, 2002)일 가능성이 높고, 성장기에 거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조혜정, 2013)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스트레스 경험으로 볼 수 있다. Farber, Jenné, & Kirk(1963)에 따르면 가족 전체가 자녀에게 보호자 같은 성인 역할을 요구하게 되면 자녀가 극단적인 무력감을 경험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

려해보면 부모화된 자녀들이 과도한 심리적 요구에 기인하여 정서적 자원들이 고갈되었고 느끼는 에너지 결핍의 상태인 정서적 소진(신강현, 2003)에 처하게 될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정서적 소진은 정신건강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소진을 경험하는 개인은 불안을 비롯한 정서적, 신체적 유병률이 증가하는데(Catalan et al.,1996; Corrigan., Paul Holmes, & Luchins, 1995) 특히 소진의 초기 단계에서 높은 각성도를 수반하는 극단적인 대응행동을 하게 되어 높은 수준의 불안이 동반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김진주, 노재훈, 원종욱, 이신영, 장세진, 2010)가 있다. 또한 소진은 한번 발생하게 되면 점차 그 정도가 심해질 수 있어(유성경, 박성호, 2002) 불안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화 경험은 정서적 소진을 경험하게 하며, 다시 정서적 소진이 불안에 이를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와 적응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진 대표적인 심리·사회학적 요인이다(이경아, 1997). 대학생 시기의 사회적 지지원으로 부모, 형제, 친구, 교수 등을 들 수 있다(이선영, 2004). 부모로부터 충분한 돌봄과 지지에 대한 지각을 하는 것은 자녀의 불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자은, 2000; 김희연, 채규만, 2010; 김도연, 1993). 부모화 경험은 부모-자녀 관계가 역전되어 부모로부터의 적절한 돌봄과 지지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 이외의 친구 및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적 지지원에 의한 지지가 부모화된 자녀들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화된 자녀의 성숙하고 타인

배려적 행동(정태연, 최상진, 김효창, 2002)은 한국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예상가능하다. 그러나 부모화된 자녀가 겉으로는 적응적 특성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외감을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결과(조은영, 정태연, 2004)에 비추어 본다면, 실제의 지지는 차치하고, 부적응의 극복에 도움을 주는 지각된 지지의 면에서는 긍정적인 결론을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장기 부모화 경험이 사회적 지지의 지각을 낮출 것으로 가정한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적응과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Dubow & Ullman, 1989).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경우 친구의 지지가 높을수록 불안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양미진, 이은경, 이희우, 2006). 중·고등학생의 우울과 불안에 있어서도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이 낮다고 보고하였으며(이영자, 1995), 대학생에게 있어 사회적 지지와 불안은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노라, 안창일, 2004).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는 불안을 낮출 수 있는 보호요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모화 경험은 사회적 지지와 부적인 상관, 사회적 지지와 불안은 부적인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장기 부모와 경험, 정서적 소진, 사회적 지지와 불안과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그림 1).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첫째,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 둘째,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적 소진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 방 법

###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유의표집 방법을 통해 전국 6곳의 대학교와 1곳의 전문대학에 총 7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그 중 670부가 회수되었다. 이들 중에서 모든 문항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9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651부를 최종분석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성비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43.9%(286명), 여학생이 56.1%(365명)로 나타났다. 학년분포에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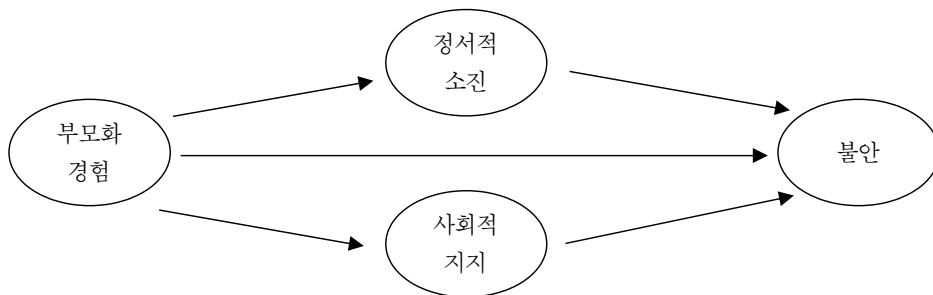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어서는 1학년이 35.2%(229명)로 가장 많았고, 2학년이 22.3%(145명), 3학년이 26.4%(172명), 4학년이 12.3%(80명), 5학년이 3.5%(23명), 기타가 0.3%(2명)로 조사되었다.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2.16( $SD=1.98$ )세로 19세~20세가 26.8%(174명), 21~23세는 47.3%(308명), 24세 이상은 25.9%(169명)이었다.

### 측정도구

#### 부모화 경험

부모화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Jurkovic과 Thirkield(1999)가 개발한 부모화 척도(Filial Responsibility Scale-Adult: FRS-A)를 신주연(2003), 문비(2006)의 변안을 기초로 연구자가 재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FRS-A는 물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불공평의 3가지 하위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하위영역별로 19세 이전의 경험을 측정하는 과거형과 현재의 경험을 측정하는 현재형이 있다. Jurkovic, Thirkield, & Morrell의 연구(2001)에 의하면 부모화의 하위요인을 불공평과 부모화-돌봄으로 보고, 부모화-돌봄이라는 하나의 요인으로 물리적 부모화와 정서적 부모화를 포함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물리적 부모화와 정서적 부모화를 돌봄으로 포함하여 부모화가 부모화-돌봄, 부모화-불공평의 하위영역을 가지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장기 부모화 경험을 살펴볼 것이므로 과거형에 해당하는 30문항을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대표적인 문항의 예로는 부모화-돌봄의 경우, '나는 나의 가족들을 위해 쇼핑(음식이나 옷 등)을 많이 했다.', '때때로 엄마, 아빠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나라고 느꼈다.'가

있으며, 부모화-불공평의 경우, '나는 가족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희생한 적이 많았다.'를 들 수 있다.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에서 '아주 많이 그렇다'는 5점을 부여하였다. 기존 연구(조혜정, 2013)에서는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가 .87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 불안

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Spielberger, Gorsuch와 Lushene(1970)이 개발하고, 김정택(1978)이 변안한 상태-특성 불안 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를 사용하였다. STAI는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의 2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태불안 영역은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내담자의 일시적인 불안을 포착할 수 있으며, 특성불안 영역은 임상 실제의 신경증적 불안 문제에서 정상 및 환자의 집단구분에서 활용된다(한덕웅, 이창호, 탁진국, 1993). 이처럼 각 하위영역이 불안문제에 있어 고루 활용되고 있으며, 양자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Spielberger, 1983) 두 가지 불안의 하위요인을 모두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문항수는 각 하위요인 당 20문항 씩 총 40문항으로 이를 모두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대표적인 문항의 예로는 상태불안의 경우, '최근 며칠동안의 기분이나 느낌에 맞추어 응답하는 형식으로 '나는 긴장이 되어 있다.', '후회스럽고 서운하다.'가 있으며, 특성불안의 경우, 일상적인 기분이나 느낌에 맞추어 응답하도록 하며 '나는 울고 싶은 심정이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가 있다. Likert식 4점 척도로 평정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에

서 ‘매우 그렇다’는 4점을 부여하였다. 기존 연구(박혜랑, 2010)에서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각각 .92, .8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2, .90으로 나타났다.

### 정서적 소진

정서적 소진을 측정하기 위하여 Maslach와 Jackson(1981)이 개발하고, 최혜윤(2002)이 변안한 Maslach 소진 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 MBI)를 사용하였다. MBI는 정서적 소진, 내담자의 비인간화, 개인적 성취감 감소의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진의 구성요소 중 가장 선행되며 핵심적인 영역으로 나타난 정서적 소진 영역에 초점을 두고 이를 측정하고자 하였으므로 정서적 소진에 해당하는 9문항을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대표적으로 ‘나는 일 때문에 정신적으로 지쳐있다고 느낀다.’, ‘나는 지나치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느낀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Likert식 7점 척도로 평정되며 ‘전혀 없다’는 0점에서 ‘매일’은 7점을 부여하였다. 요인구조가 없는 단일요인인 정서적 소진을 문항꾸러미(Item parceling)로 나누어 2개의 측정변수로 구성하였다. 문항꾸러미의 제작은 단일요인을 구조방정식 모형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비정규성수준의 감소 및 모형의 적합도 향상이라는 이점을 가진다(송연주, 2015). 기존 연구(Maslach & Jackson, 1981)의 연구에서 정서적 소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소진 꾸러미 1은 .88, 정서적 소진 꾸러미 2는 .80으로 나타났다.

###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Blumenthal 등(1987)이 개발하고, 김희정, 권정혜, 김종남, 이란, 이진숙(2008)이 변안한 사회적 지지 척도(Perceived Social Support Scale: PSSS)를 사용하였다. PSSS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며, 가족, 친구, 중요한 타인의 3가지 하위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화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일방적 돌봄이라는 윤리적 맥락에서 벗어나 자녀가 부모의 지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다(Jurkovic, 1997; 강선모, 2013,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을 제외한 친구, 중요한 타인의 도움을 측정하기 위하여 총 8문항을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대표적인 문항의 예로는 중요 타인의 지지의 경우, ‘내가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특별한 사람이 있었다.’, 친구의 지지의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친구들에게 의지할 수 있었다.’ 등을 들 수 있다.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되며, ‘전혀 아니다’는 1점에서 ‘매우 그렇다’는 5점을 부여하였다. 기존 연구(조성미, 2012)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2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중요한 타인의 도움과 친구의 도움 전체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6으로 나타났다.

###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1.0과 AMOS 20.0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부모화 경험, 불안, 정서적 소진, 사회적 지지간의 관련성을 살펴 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매개모형의 검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분석하였다.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chi^2$  test statistics, NFI(Normed Fit

Index), TLI(Tur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적합도 지수의 기준은 NFI, TLI, CFI가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의 모형으로 간주하며(홍세희, 2000). RMSEA 값은 .05이하이면 좋은 모형, .08이하이면 적절한 모형, .10이하이면 보통수준으로 구분한다(Browne & Cudeck, 1993). 적합성이 검증된 연구모형의 추정치를 통해 변인들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매개변인과 관련된 특정간접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기술 통계치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고,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 분석으로 부모화 경험, 정서적 소진, 사회적 지지, 불안의 정규분포를 검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Curran, West & Finch(1996)에 따르면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을 때 변인들의 정규분포성을 가정할 수 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 값을 검토해본 결과, 정규성 위반을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 정서적 소진, 사회적 지지, 불안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 점검의 근거가 되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다.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은 정서적 소진( $r=.21, p<0.1$ ), 불안( $r=.14, p<0.1$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사회적 지지( $r=-.10, p<0.5$ )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정서적 소진과 불안( $r=.61, p<0.1$ )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사회적 지지와 불안( $r=-.33, p<0.1$ )의 관계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으로 확인되었다.

### 연구모형의 타당성 검증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과 정서적 소진, 사회

표 1. 측정변인들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변인 간 상관

	1	2	3	4
1. 부모화 경험	1			
2. 정서적 소진	.21**	1		
3. 사회적 지지	-.10*	-.20**	1	
4. 불안	.14**	.61**	-.33**	1
M	2.24	2.46	3.97	2.31
SD	0.49	1.26	0.94	0.48
왜도	0.74	0.07	-0.79	-0.18
첨도	0.58	-0.42	-0.08	-0.26

주. \*  $p<.05$ , \*\*  $p<.01$

표 2.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chi^2 (p)$	df	NFI	TLI	CFI	RMSEA
연구모형	84.017***	15	.970	.940	.975	.084

주. \*\*\*  $p < .001$

적 지지와 불안 간의 관계구조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chi^2$  검증과 함께 사례 수와 모형의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NFI, TLI, CFI, RMSEA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NFI=.970, TLI=.940, CFI=.975로 모두 .9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RMSEA 역시 .084로 수용할만한 적합도 지수의 기준을 충족시켰다.

부모화 경험, 정서적 소진, 사회적 지지 및 불안 간의 관계

그림 2는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과 정서적 소진, 사회적 지지와 불안의 구조적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연구모형의 검증결과에 따르

면 부모화 경험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화 경험은 정서적 소진에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15, p < .05$ ). 이는 부모화 경험의 수준이 높은 대학생 자녀일수록 정서적 소진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서적 소진은 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66, p < .001$ ). 따라서 높은 정서적 소진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화 경험은 사회적 지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beta=-.19, p < .05$ ). 즉 높은 수준의 부모화 경험을 한 대학생 자녀일수록 사회적 지지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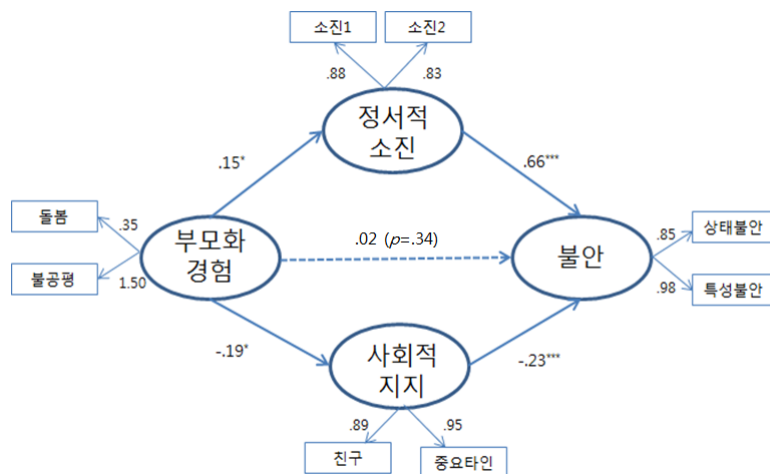


그림 2. 부모화 경험, 정서적 소진, 사회적 소진, 불안의 연구모형 검증 결과



표 3. 매개효과의 효과분해

변인 간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모화 경험	→	정서적 소진	.15*	-	.15*
부모화 경험	→	사회적 지지	-.19*	-	-.19*
부모화 경험	→	불안	.02	.14*	.16*
정서적 소진	→	불안	.66**	-	.66**
사회적 지지	→	불안	-.23**	-	-.23**

주. \* $p < .05$ , \*\* $p < .01$

회적 지지는 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beta = -0.23, p < .001$ ) 이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 수준이 높을수록 불안 수준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부모화 경험, 정서적 소진, 사회적 지지, 불안 간의 인과관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앞서 구조모형 경로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난 요인에 대한 효과분해를 실시하였다. 효과분해의 결과로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부모화 경험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효과와 정서적 소진 및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로 나누어진다.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화 경험은 정서적 소진( $\beta = .15, p < .05$ )과 사회적 지지( $\beta = .19, p < .05$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불안에 대해 정서적 소진은( $\beta = .66, p < .01$ ) 정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beta = -.23, p < .01$ ) 부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화 경험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적 소진과 사회적 지지의 간접효과는 총 효과에서 직접효과를 뺀 값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간접효과  $\beta = .14$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인 정서적 소진과 사회적 지지의 각 특정간접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Sobel 검증은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경유하여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것이다(Baron & Kenny, 1986). Sobel 검증의 Z값은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데 Z값이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1.96을 넘어서( $Z = 2.13, p < .05$ ;  $Z = 2.11, p < .05$ ),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화 경험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적 소진과 사회적 지지가 각각 완전매개효과를 가짐을 의미한다.

##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양자의 관계에서 정서적 소진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대학생 시기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내적 혹은 환경적 변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구조모형의 검증결과, 부모화 경험과 불안

간의 관계에서 정서적 소진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부모화 경험은 정서적 소진과 사회적 지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서적 소진과 사회적 지지가 다시 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다만 부모화 경험과 불안 및 위의 두 변인을 포함하는 구조모형에서 부모화 경험과 불안은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정서적 소진과 사회적 지지가 완전매개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생 자녀의 불안이 성장기 부모화 경험의 개별적 영향보다는 다양한 매개변인으로 인한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담실제에서 불안을 호소하는 대학생 내담자의 경우 성장기 부모화 경험뿐만 아니라 매개효과가 검증된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탐색과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부모화 경험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정서적 소진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모형의 검증결과 성장기의 부모화 경험이 대학생 시기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어 정서적 소진이 완전매개효과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서적 소진의 매개효과는 성장기에 가족 내에서 지나친 성인의 행동을 강요받는 것이 자녀로 하여금 압도적인 무력감(Farber, Jenné, & Kirk, 1963)을 느끼게 한다는 연구결과와 일관성을 보인다. 또한 이는 부모화를 경험한 심리치료사가 자신의 욕구보다 타인의 욕구에 집중되어 있을 때 소진되기 쉽다는(Earley & Cushway, 2002) 연구결과와 함께 고려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모화 경험과 정서적 소진의 정적 관계를 통하여 부모화된 자녀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신의 우선적인 욕구를 배제하고, 타인 혹은 자신의 거짓된 욕구

에 의해 수행에 매달리게 되었을 때 정서적 소진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정서적 소진은 불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진이 인간의 심각한 정신적 붕괴를 의미하며(Neslihan, Üstün., & Gigliotti, 2009) 신체적, 정신적으로 개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Kahill, 1988; 최성진, 2006, 재인용), 심리적 불안을 겪도록 한다는 연구결과(Maslach, Schaufeli & Leiter, 2001)와 맥을 같이한다. 이를 통하여 부모화 경험이 심리내적인 변인인 정서적 소진을 통해 심리적 부적응에 해당하는 불안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과정의 검증을 통하여 유기적인 연결성을 가진 일련의 경험으로서 부모화 경험과 정서적 소진, 불안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부모화 경험과 불안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역시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부모화 경험과 사회적 지지의 부적 상관은 부모화된 자녀가 관계 맺기에 능숙해 보이는 걸모습과는 달리(조은영, 2004)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해결을 위한 지지의 요청이나 실제 지지에 대한 지각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화된 자녀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그들을 돌보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를 양도하는 것에 대해 위협감을 느낀다고 한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도움받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자신의 욕구를 약하거나 유지한 의존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Teyber, 2006). 따라서 부모화된 자녀들은 그들 스스로가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고, 받는 것에 대해 어려워할 수 있다. 그러나 지각된 사회적 지

지는 선행연구(이영자, 1995)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적응에 해당하는 불안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인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 정서, 개인의 생활 상황에서 안정감 등을 제공하여 적응에 정적 영향을 준다고 한 기존의 연구결과들(Cohen & Wills, 1985; 김효정, 이승연, 노경란, 2014, 재인용)과 맥을 함께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모화라는 특수한 경험과 그로 인한 사회적 지지와의 부적 관계를 규명할 수 있었으며, 강력한 보호요인으로서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부모화와 심리적 부적응 중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불안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불안은 치료장면에서 빈번하게 호소되는 정서적 불편감으로서(이선영, 안창일, 2012) 대학생활뿐만 아니라 취업, 대인관계 등의 다양한 문제를 접하게 되는 대학생들에게는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응 문제임에도 부모화와 관련하여서는 중심된 주제로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모화 경험과 불안의 관계를 살펴본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 시기의 정신건강 문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불안 문제, 그리고 그 원인으로서는 부모-자녀 관계 문제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자료를 남겼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는 부모화와 불안의 관계를 설명하는 새로운 변인으로서 정서적 소진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부모화 경험과 불안 및 사회불안의 관계에 대한 매개변인으로 내현적 자기에 성향(강지희, 2008), 완벽주의(함광성, 2015) 등의 성격특성이 검증되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임상적 함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완벽주의는 오랫동안 지속되고 변화가 어려운 성격특성으로서(권은미, 2006). 이에 대한 탐색은 심리내적 구조의 이해를 높일 수는 있으나 내담자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입 방안을 도출해내기 어렵다. 따라서 심리내적 변인이면서 나아가 진행과정을 가진 정서적 소진이라는 변인의 검증은 실천적 개입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학생 내담자의 정서적 소진으로 시작되는 소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차원의 소진 방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궁극적으로는 불안문제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많은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심리검사를 통하여 불안 및 소진문제 위험군에 대한 선별작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한 체계적인 개인 및 집단상담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불안문제에 대한 개별적인 상담 개입 시 내담자가 가정 내 혹은 학교생활 등에서 정서적 소진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소진에 대한 위험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방지하여 부적응을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부모화 경험과 불안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일부 하위 요인에서만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였던 선행연구(선진, 2013)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부모화 경험의 하위 요인들이 언제나 뚜렷한 경계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대체적으로 요인간 유기적 관련을 가지고 있다(Jurkovic, 1997)는 점에 근거하여 대학생 자녀들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화 경험 자체와 사회적 지지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연구결과, 부모화를 경험한 대학생들은 사회적 지

지의 지각을 다소 낮게 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지는 여전히 불안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불안문제를 경험하는 자녀들에게는 다소 부족하거나 결여된 부모의 지지를 대신할 수 있는 친구나 중요 타인의 지지가 높은 중요성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상담실제에 있어 대학생의 불안문제에 대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 단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대학 학생상담센터를 중심으로 한 학내 또래상담 및 지역사회의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학생 내담자와 학교 안팎의 사회적 지지원 간의 적극적 연계활동을 통해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원을 파악하고 이를 확장시켜가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각 프로그램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대학생 내담자들이 실제의 지지에 대한 지각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둘러싼 관계에 대한 인지적 차원의 인식 전환을 돕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지닌 한계점을 바탕으로 향후 진행될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화 경험과 불안 사이의 정서적 소진과 사회적 지지라는 직접경로에 집중하여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연구모형에 따른 새로운 매개변인을 검증하였으나 경로 내의 변인들 간의 관계성과 전체 경로에 대한 영향력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매개변인 간의 관계성에 주목하여 이중매개 등의 가능성을 가지고 다양한 대안모형을 설정하여 부모화 경험과 불안에 대한 더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화 경험과 불안 사이에서 개인의 심리내적, 사회적 측면의 매

개변인의 검증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부모화 경험은 개인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크게는 가족 역동과 관련된 현상으로서 이와 관련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 해외에서 정신건강문제를 가진 부모(Van Loon, Van de Ven, Van Doesum, Hosman, & Witteman, 2015), 우울한 부모로부터 성장한 청소년 자녀의 부모화 연구(Van Parys, Bonnewyn, Hooghe, De Mol, & Rober, 2015) 및 후기 청소년의 부모화와 관련한 가족 구조적 측면의 특징에 주목한 연구(Borchet, Lewandowska-Walter, & Rostowska, 2016)가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부모화 경험과 관련한 특수한 가족 변인에 초점을 맞춘 후속연구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자료수집에 사용된 설문은 모두 자기보고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대상자가 실제로 한 경험이나 그에 대한 솔직한 생각보다는 사회적 바람직성에 영향을 받거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응답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대상자들의 솔직한 경험을 수용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부모화 척도와 관련하여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부모화 척도는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가정에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서구적 관점에서 만들어져 이와는 달리 효를 강조하는 한국 사회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더 나아가 부모화 척도는 아직 한국에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연구에서 척도의 표준화 및 재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선모 (2013). 부모화와 안녕감의 구조관계분석: 수치심,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원희 (2010). 청소년의 부모화 경험과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지희 (2008). 부모화경험이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매개변인으로.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자은 (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적응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석만 (2010). 인생의 2막 대학생할. 서울: 학지사.
- 권은미 (2006). 내현적자기애가 사회공포증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미, 이하나, 정주리, 정현주, 이기학 (2006). 갈등적 독립수준, 자기주장성,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으로 살펴본 부모화의 하위 집단별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3(1), 19-32.
- 김도연 (1993). 성격특성, 가족지지 및 대처 방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교생의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택 (1978). 특성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 Spielberger의 STAI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주, 노재훈, 원종욱, 이신영, 장세진 (2010). 작업치료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 대한 직업환경의학회지, 22(3), 173-182.
- 김효정, 이승연, 노경란 (2014). 대학생의 애착, 분리-개별화와 불안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9(4), 339-359.
- 김희연, 채규만 (2010). 심리도식, 가족응집성-적응성, 스트레스 취약성과 자살생각의 관련성. 인지행동치료, 10(1), 39-55.
- 김희정, 권정혜, 김종남, 이란, 이진숙 (2008). 유방암 생존자의 외상후성장 관련 요인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3), 781-799.
- 류정현 (2007). 한국적 부모-자녀 관계, 가족주의, 효. 부모교육연구, 4(2), 81-94.
- 문비 (2006). 부모화 경험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 김이철, (2000).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초, 중, 고. 대학생의 성취동기, 생활만족도, 학업성취, 일탈행동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38(2), 109-147.
- 박진아, 신유림, 이미리, 전연진, 이경숙 (2015). 한국판 아동용 부모자녀관계 척도 표준화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3(2), 169-177.
- 박혜량 (2010). 상태-특성불안, 자기효능감, 행동억제체계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경현, 조양선, 손 술 (2013).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방식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부모화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1), 203-217.
- 선진 (2013). 부모화 경험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연주 (2015). 초등학생의 ADHD 증상이 또래 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 돌봄과 교사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27(1), 203-229.
- 신강현 (2003). 일반직 종사자를 위한 직무 소진 척도 (MBI-GS) 에 대한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6(3), 1-17.
- 신노라, 안창일 (2004). 성인 애착 유형과 자기 개념, 효능감, 대처 양식, 사회적지지 수준과 대인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4), 949-968.
- 신주연 (2003). 성장기의 부모화 경험이 대학생의 병리적 의존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 변인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미진, 이은경, 이희우 (2006). 청소년의 심리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14(1), 63-76.
- 원호택, 신현균, 박현순, 권석만 (1996). 불안장애 환자가 나타내는 사고내용의 특성. 심리과학, 5(1), 1-12.
- 유성경, 박성호 (2002). 상담환경의 위험요소,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상담자의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389-400.
- 이경아 (1997).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선영 (2004).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진로 결정수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선영, 안창일 (2012). 불안에 대한 수용-전념 치료의 치료과정 변인과 치료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1059-1076.
- 이영자 (1995).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역할.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3, 195-242.
- 정태연, 최상진, 김효창 (2002). 아동과 어른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표상.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8(2), 51-76.
- 조맹제, 박종익, 배안, 배재남, 손정우, 안준호, 이동우, 이영문, 이준영, 장성만 (2012). 보건복지부 학술연구 용역사업 보고서 2011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조성미 (2012). 청년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인지요인, 사회적 지지 및 리질리언스의 인과적 관련성.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은영 (2004). 부모화된 자녀의 심리적 특성 및 가족 내 영향력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은영, 정태연 (2004). 자녀의 부모화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들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1), 43-62.
- 조혜정 (2013).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과 자아분화가 우울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성진 (2006). 사회복지사의 소진(Burnout)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인재 (2005).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문화적 특징 -부자유친성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1059-1076.
- 최진숙, 조수철 (1990). 주의력결핍·과잉운동장애와 행동장애 및 반항장애와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정신의학, 15(2), 147-159.
- 최혜윤 (2002). 상담자의 완벽주의 성향,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

- 위논문.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4). *상담경향 분석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덕웅, 이장호, 탁진국 (1993). Spielberger 상태-특성 불안 검사의 표준화. *학생지도연구*, 10(1), 214-222.
- 함광성 (2015). *중학생의 부모화 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Bagozzi, R. P., & Edwards, J. R. (1998). A general approach for representing constructs in organizational research.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1(1), 45-87.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lumenthal, J. A., Burg, M. M., Barefoot, J., Williams, R. B., Haney, T., & Zimet, G. (1987). Social support, type a behavior, and coronary artery disease. *Psychosomatic Medicine*, 49(4), 331-340.
- Borchet, J., Lewandowska-Walter, A., & Rostowska, T. (2016). Parentification in late adolescence and selected features of the family system. *Health Psychology Report*, 4(2), 116-127.
- Boszormenyi-Nagy, I., & Spark, G. M. (1973). *Invisible loyalties: Reciprocity in intergenerational family therapy*. New York: Harper & row.
- Browne,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 Sage.
- Byng-Hall, J. (2002). Relieving parentified children's burden in families with insecure attachment patterns. *Family Process*, 41(3), 375-388.
- Catalan, J., Burgess, A., Pergami, A., Hulme, N., Gazzard, B., & Phillips, R. (1996). The psychological impact on staff of caring for people with serious diseases: the case of HIV infection and oncology.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40(4), 425-435.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Corrigan, P. W., Paul Holmes, E., & Luchins, D. (1995). Burnout and collegial support in state psychiatric hospital staff.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1(5), 703-710.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 16-29.
- Davies, P. T. (2002). Commentary: Conceptual Links between Byng-Hall's theory of parentification and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Family Process*, 41(3), 551-555.
- Dubow, E. F., & Ullman, D. 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1), 52-64.
- Earley, L., & Cushway, D. (2002). The parentified

- child. *Clinical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7(2), 163-178.
- Farber, B., Jenné, W. C., & Kirk, S. A. (1963). Family organization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Parents and siblings of a retarded chil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28(7) 1-78.
- Havighurst, R. J. (1968).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New York: David Mackay Company.
- Hooper, L. M. (2007). Expanding the discussion regarding parentification and its varied outcomes: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research and practice.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9(4), 322-337.
- Jurkovic, G. J. (1997). *Lost childhoods: The plight of the parentified child*. New York: Brunner/Mazel.
- Jurkovic, G. J., Jesse, E. H., & Goglia, L. R. (1991). Treatment of parental children and their families: Conceptual and technical issue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9(4), 302-314.
- Jurkovic, G. J., & Thirkield, A. (1999). *Filial Responsibility Scale-Adult(FRS-A)*. Unpublished document, Department of Psychology, Georgia State University, Atlanta, GA.
- Jurkovic, G. J., Thirkield, A., & Morrell, R. (2001). Parentification in adult children of divorce: A multidimensional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2), 245-257.
- Kahill, S. (1988). Symptoms of professional burnout: A review of the empirical evidence. *Canadian Psychology/Psychologie canadienne*, 29(3), 284.
- Kendall, P. C., MacDonald, J. P., & Treadwell, K. R. (1995). The treatment of anxiety disorders in youth. In A. Eisen, C. Kearney, & C. Schaefer(Eds.), *Clinical handbook of anxiety disorders in children and youth*. 573-598. Northvale, NJ: Jason Aronson.
- Neslihan, P., Üstün, B., & Gigliotti, E. (2009). Conceptualization of burnou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euman systems model. *Nursing science quarterly*, 22(3), 200-204.
- Maslach, C., & Jackson, S. E. (1981). *Maslach burnout inventory manual*.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Maslach, C., Schaufeli, W. B., & Leiter, M. P. (2001). Job burnou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1), 397-422.
- Matthews, K. A., & Angulo, J. (1980). Measurement of the Type A behavior pattern in children: Assessment of children's competitiveness, impatience-anger, and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51(2), 466-475.
- McMahon, T. J., & Luthar, S. S. (2007). Defining characteristics and potential consequences of caretaking burden among children living in urban povert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7(2), 267-281.
- Meyer, P. (1980). Between families: The unattached young adult. In Carter, E., & McGoldrick, M.(Eds.), *The Family life cycle: A framework for family therapy*. New York:Gardner Press.
- Spielberger, C. D. (1983).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Form 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 Lushene, R. E. (1970). Manual for the strait trait anxiety interview(self-evaluation questionnaire). Palo



- Alto, Californi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 Teyber, E. (2006). *이혼가정 자녀 어떻게 돌볼 것인가* [*Helping children cope with divorce*]. (성정현, 김희수, 박한샘, 양심영, 양혜원, 전명희, 주소희, 최정숙 공역). 서울: 청목출판사. (원전은 1997년에 출판).
- Van Loon, L., Van de Ven, M. O., Van Doesum, K., Hosman, C. M., & Witteman, C. L. (2015). Parentification, stress, and problem behavior of adolescents who have a parent with mental health problems. *Family process*, 10(10), 1-13. Epub ahead of print.
- Van Parys, H., Bonnewyn, A., Hooghe, A., De Mol, J., & Rober, P. (2015). Toward understanding the child's experience in the process of parentification: Young adults' reflections on growing up with a depressed parent.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41(4), 522-536.
- Wells, M., Glickauf-Hughes, C., & Jones, R. (1999). Codependency: A grass roots construct's relationship to shame-proneness, low self-esteem, and childhood parentification.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7(1), 63-71.

원 고 접 수 일 : 2016. 04. 21

수정원고접수일 : 2016. 07. 11

게 재 결 정 일 : 2016. 07. 25

##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Parentification on Anxiety: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Exhaustion and Social Support

Boram Kim

Student Counseling Center,  
Dong-A University

Sumi Choi

Konkuk University

The primary focus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exhaustion and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fication and anxiety. Through the purposive sampling technique, six hundred fifty one students were recruited from seven universities and colleges located in South Korea. Parentification, anxiety, emotional exhaustion and social support was explored. For data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employed and all analyses were completed by using SPSS 21.0 and AMOS 20.0. Results suggests that parentification has an indirect effect on anxiety through emotional exhaustion and social support rather than have a direct effect on anxiety, suggesting to consider various factors associated with parentification to better help college students with anxiety related problems. Implication and potential for follow-up study were further discussed.

*Key words* : parentification, anxiety, emotional exhaustion, social support